

越南戰爭 기간중 발생한 韓國軍 捕虜 및 失蹤者에 관한 真相

— 파월 국군 실종자 900명은 戰史 왜곡이다 —

鄭 錫 均

(國防軍史研究所, 先任研究員)

1. 序 言
2. 捕虜 및 失蹤者數 900명은 計算錯誤
3. 한국군 투항사진의 眞僞
4. 戰況報告를 허위과장하는 越盟軍
5. 국군포로 12명의 공작귀환설은 虛構
6. KBS 증언자의 推理劇과 偏向報道
7. 結 語

1. 序 言

最近 파월국군 포로 및 실종자에 관한 논란이 학계와 언론계에

서 많은 연구와 분석을 통해 자기나름대로의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뜨거운 논쟁은 최초 서울대 全京秀 교수(人類學)가 발표한 論文 「베트남 전쟁동안의 한국군 포로와 실종자」에서 問題가 提起된 것이다. 그는 국방부가 이를 축소, 은폐하고 있고 외교경로를 통해 이 문제를 거론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파월국군을 ‘傭兵’으로 매도하는가 하면 국방부의 道德性을 운운하는 등 국군파월의 역사적 의의를 왜곡하고 있다.

이 論文이 발표된 직후 몇몇 일간신문에서는 마치 파월국군의 포로 및 실종자수가 900명으로 확인이 된 것처럼 과장보도를 했고, KBS-1TV(94. 4. 29) ‘주간 뉴스초점’에서는 일부 월남참전자의 증언을 포함하여 全교수의 주장을 동조하는 자료들만을 모아 편향된 시각에서 보도를 하였으며, 그후 일부 주간지에서도 실종자의 축소, 은폐를 주장하는 내용을 기사화함으로써 국방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의구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예하 관련기관에서는 이를 해명하기 위한 각종 자료의 檢證에 들어갔고 그 결과 그들의 주장이 대부분 心證, 推測이라는 것과 일부 주장은 計算錯誤, 일부 同調발언은 허위조작한 事實을 밝혀냈던 것이다. 필자는 그동안 많은 조사활동과 자료를 심층분석하여 학계와 언론계에서 주장하는 事案의 主要爭點을 중심으로 그들 주장의 誤謬를 지적하고 眞相을 밝히고자 한다.

2. 捕虜 및 失蹤者數 900명은 計算錯誤

그럼 먼저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는 포로 및 실종자수에 대해서 알아보자. 손교수는 그의 논문 결어에서

현재 제시되어 있는 국방부측의 자료는 사망총계가 4,960명이다. 현재 외무부장관인 한승주씨가 1978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학술지에 보고한 자료는 베트남전 동안에 발생한 한국군 사망자를 4,000명 정도로 잡고 있다(Han 1978:893). 나는 이 두 가지의 다른 사망통계가 다 근거있는 유력한 자료라고 평가하고 그 차이점의 원인이 바로 숫자의 처리방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전자(국방부측 자료)는 포로와 실종자를 모두 전사자로 처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베트남전쟁 동안에 발생한 한국군의 포로 및 실종자의 숫자는 전자의 숫자(국방부측 자료)와 후자의 숫자(한승주씨 자료)의 차이인 900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즉, 그의 주장은 한국군 사망은 4,000명인데 국방부가 실종자 및 포로 960명이 발생한 것을 은폐하기 위해 전사자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그러한 주장은 터무니없는 추리이고 계산착오임을 다음 자료를 통해서 반박하고자 한다. 논문의 논리는 다음과 같은 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1) 국방부 사망총계 - 한승주 논문의 사망총계 = 900명 정도

$$(4,960\text{명} - 4,000\text{명} = 960\text{명})$$

(2) 이 주장의 모순은 이 等式이 성립하지 않는다는데서 비롯된다. 왜냐하면 국방부의 사망통계와 한승주 논문의 사망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 국방부의 사망통계는 군사용어로 바꾸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text{사망통계} = \text{전투손실(전사자)} + \text{비전투손실(순직, 사망)}$$

$$(4,960 = 3,806\text{명} + 1,154\text{명})$$

그리고 한승주 논문의 사망통계는 미국의 1970년 2월 상원청문회에서 밝혀진 1970. 2. 7현재 국군의 전투손실(전사자, KIA) 3,094명을 근거로 종전때(1973. 3. 15)까지 battle death(전사자)를 약 4,000명으로 추산한 추정치로서 정확한 수치가 아니다. 그러나 손교수는 한승주씨의 논문 수치 4,000명 속에 비전투손실인 순직, 사망(1,154명)이 포함된 것으로 착각하고 국방부통계와의 차이인 960명을 국방부가 은폐, 조작했을 것이라는 포로 및 실종자의 수로 추리함으로써 계산착오를 일으켰던 것이다.

둘째로 실종자의 자료인용문제의 모순점을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승주씨의 자료를 신뢰하여 파월국군의 전사자를 4,000명으로 인용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한승주씨 논문의 근거자료는 미상원청문회 자료이며 동문건의 같은 페이지에 1970. 2. 7 현재 한국군의 실종자(MIA)를 4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실종자수 4명은 인용하지 않고 전사자수만 인용하여 국방부통계와 차이는 병력수를 가지고 실종자 900여명의 발생 운운은 전혀 논리

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참고사항 : 1994. 4. 22 국방부발표 한국군의 피해현황은 4,960명
보다 106명이 많은 5,066명임.)

셋째로 월남에서의 한국군의 전술작전의 특징을 고찰할 때 포
로나 실종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월남전장은 6·25 한국전쟁이나 지금의 휴전선처럼 전선이 형성
되어 있지 않았다. 한국군의 임무는 그 나라 동부의 해안 일정지
역을 전술작전 책임지역으로 맡아 그 지역내의 적을 구축하고 평
정을 하는 것이었다. 한국군은 이 지역을 부대별로 분할하여 마지
막에는 중대가 부여받은 책임지역의 중요지역에 전술기지를 독립
적으로 설치하고, 이 기지를 생활과 작전의 근거지로 삼아 작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전술기지는 우선 생존을 위해 적의 연대급 공
격에도 48시간 이상 지탱할 수 있도록 축성을 하였고 먹을 물과
식량, 탄약 등을 비축하였다. 작전의 기본개념은 이 기지를 방어
하고, 이를 위해 기지주변 책임지역에 대한 수색과 매복작전을 전
개한다. 때에 따라서는 책임지역내에 적정이 증가되어 규모가 큰
적이 활동할 경우에는 그 규모에 따라 국군은 대부대를 동원하여
적의 활동 및 은거지역을 포위하고 포위망을 좁히면서 적을 몰아
소탕한 뒤 전술기지로 원대복귀한다. 이러한 작전에서 큰 희생이
나 많은 실종자가 날 수 없게 되어 있다. 당시 주월군의 방침은
전투에서 실종자가 발생한다면 작전을 연장하거나 추가적인 부대
를 투입해서라도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실종자 수색작전을 펴도
록 하였고(94. 5. 4 채명신 주월사령관 증언) 한 사람의 전우도 적
에게 넘겨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만약 적이 전투에서 포로

가 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작전상황에서 그 포로를 국군의 전술책임지역 밖의 멀리 떨어진 그들의 통제지역으로 후송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장의 상황이었다. 결국 전선이 없는 월남전의 특징, 한국군의 작전방침 등에 관하여 이해를 한다면 포로나 실종자가 많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철수 무렵 안케팩스작전(1972. 4)은 전술책임지역경계에서 벌인 예외적인 작전이었다.

넷째로 전사자료의 분석과 참전자의 증언을 들어 보자. 국방부의 사료, 미국 청문회의 기록, 중요신문의 보도 등 어느 자료에도 포로 및 실종자의 수는 발표되어 있는 8명이다.

파월한국군 실종자 현황(1994. 4. 22 국방부 발표)

군 별	소 속	계 급	성 명	실 종 일
육 군	주월사 태권단	대 위	김 인 식	'71. 7. 19
	9사단(백마)	대 위	박 우 식	'67. 12. 2
	주월사	하 사	정 준 택	'67. 5. 7
	건설지원단(비둘기)	하 사	안 학 수	'67. 3. 22
	수도사단(맹호)	병 장	박 성 열	'65. 11. 3
	9사단(백마)	상 병	김 인 수	'68. 2. 18
해 군	해병2여단(청룡)	병 장	안 상 이	'69. 7. 27
	해병2여단(청룡)	상 병	이 용 선	'69. 12. 2

- ※ 100 군수사(십자성) 중위 조준범 : '72. 3. 29 탈영
'74. 4. 13 자진 복귀
- ※ 수기사(맹호) 일병 유종철 : '72. 4. 27 전사 처리
'73. 3. 27 생환

다음은 참전자의 증언을 분석해보자.

KBS 대담에서 일부 참전자들이 全교수의 논문에 동조발언을 했으나 근거자료나 구체적 사례를 열거하지 못하였다. 반대로 대부분의 참전자들은 월남전에서 많은 실종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은 6항 KBS 증언자의 推理劇과 偏向報道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

안케패스전투에서 실종되었다가 송환된 유종철씨는 국방부 관계관과의 면담에서 11개월간의 억류기간중 국군포로를 보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포로에 관한 첩보를 들은 적도 없다고 하였다. 만일 全교수의 주장처럼 900여명이라면 같은 수용소에서 만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또 실종자가 해외에 살고 있다면 우리 교포사회를 통해 알려질 것이며, 북한에 살고 있다면 북한은 이미 그들을 대남 심리전에 최대로 이용했을 것이다. 맹호부대에서 약 2년간(1968. 6. 15~1970. 7. 31) 전사장교로 근무한 예비역 장교는 재직기간중 실종자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듣지도 못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주월사 공보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예비역 장교도 실종자에 대한 보도통제는 하지 않았고 근무기간중 실종자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었으며 당시 종군기자로 근무한 적이 있던 분으로서 현재 시사주간지의 주간을 맡고 있는 분은 “월남전에서 국군의 실종자가 있다면 몇명이지 몇백명이라는 말은 말도 안된다. 작전의 성격, 작전지역을 분석해 볼 때 그렇게 많이 발생할 수가 없다. 내가 종군기자생활을 1년반 이상 했지만 실종자 보도를 통제하거나 축소조작했다는 등의 이 얘기는 전혀 거론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파월국군의 포로 및 실종자의 수는 全교수 논문의 근거자료 분석, 미상원청문회 자료해석, 전술작전의 특징고찰, 전사자료의 분석, 참전자 및 종군기자의 증언 등을 종합 검토해볼 때 900명이라는 수치는 군사용어의 개념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며 전혀 신뢰성이 없는 계산착오로 평가할 수 있다.

3. 한국군 투항사진의 眞僞

全교수는 하노이 군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한국군 투항사진 “남조선 군인들의 얼굴”을 예로 들면서 자기가 주장한 실종자 900명 발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사진설명에서 “항복을 표시하는 손등의 자세로 처연한 얼굴을 하고 있는 일군의 한국군 병사들은 청룡부대일 가능성이 짙다. 맨앞에 있는 병사가 방탄용 조끼를 입고 있는데 그 옷에 얼룩 무늬가 보인다.”고 하면서 아무런 분석없이 월맹의 선전자료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전술적 견지에서 사진을 분석해 보거나 인상착의를 분석해보면 많은 의문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전술적 견지에서 사진을 분석해 보면

첫째, 사진은 교통호에 철주가 밝혀 있는 것으로 미루어 한국군 진지라면 중대전술기지이다. 지형으로 보아 적의 전술기지

를 점령하고 외곽 교통호상의 병사를 포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숲 등의 환경이 한국군 전술기지의 실제상황과 부합되지 않는다.

둘째, 1명의 적에 의해 여러 명이 총을 버린 채 손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진지가 완전히 점령당한 주간상황임을 알 수 있는데, 연합군이 제공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적이 진지공격을 한다면 야간에 실시하고 철수하여 은폐하였다. 이 사진은 주간에 촬영한 것인데 이와 같이 주간에 진지가 적에게 돌파된 경우는 없었다.

인상착의를 분석해 보면



“남조선 군인들의 얼굴”이라는 제목의 월맹군 승전홍보사진

첫째, 골격이 한국인 보다는 월남인에 더 가깝게 보인다. 하노이 군사박물관에서 동일한 사진을 본 관광객도 골격이 동남아인 같았다고 증언하였다.

둘째, 얼굴 모습은 처연한 것이 아니고 장난기가 있는 것처럼 웃고 있는 모습이다. 포로가 되는 순간인데 그런 여유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머리카락이 너무 짧다.

셋째, 방탄조끼를 입었는데 그 옷의 무늬가 얼룩무늬라고 하였으나 사진을 세밀히 판독하면 얼룩무늬로 식별되지 않는다. 그 당시에는 청룡부대 외에도 월남해병대, 민병대도 얼룩무늬복장을 착용하였다.

넷째, 작전용 시계를 착용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국군이 착용한 나침반용 시계는 검정색이었다. 사진에는 흰색이다.

사진의 진위를 검토하기 위해 전사기록을 조사한 결과,

한국군의 중대전술기지는 적의 연대규모 공격에 48시간 이상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었다. 해병전투사 뿐만 아니라 전 주월군의 전투사를 통해 중대전술기지의 일부가 야간에 돌파된 경우는 몇 차례 있으나 주간에 돌파당한 적은 없다. 그리고 손교수는 이 사진의 앞의 두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그를 아는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면 금방 나타날 것처럼 이야기했으나 1993년 5월에 군사저널에서 사진이 최초로 공개된 이래 1994년 4월 29일 KBS-TV, 5월 1일 일요신문, 5월 5일 주간조선, 5월 12일 시사저널 등에 ‘누가 이 병사를 모르시나요’ 하고 1년간 연속적으로 보도되었지만 아직까지 사진의 주인공이

나의 가족이나 동료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다음은 사진촬영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알아본다.

국방부가 하노이 군사박물관 전시 책임자로부터 입수한 정보는 촬영시기가 1965년 가을부터 1966년 봄까지 전기공세기간에 베트남 종군기자가 촬영한 것이며 장소는 확인중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1994년 5월)에 한국군 실종자 문제를 취재하러 갔던 한 언론사(월간조선 94년 6월호)에서는 현지 군사박물관 관계자로부터 직접 확인했다면서 빈딩성(귀논 일대의 맹호작전지역)이라고 했고 그 지역은 월맹군이 제시한 전황일지의 1968년 4월 10일 한국군 포로들이 잡힌 지역과 우연하게 일치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월맹측의 자료를 대변해 주는 듯하였다. 그러나 뒤에 상세히 언급할 1968년 4월 10일 전투상보에는 그 기간에 한국군은 그렇게 큰 작전을 실시한 적이 없으며 따라서 포로나 실종자 또는 전사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다른 언론사(월간중앙 94년 6월호)에서는 1967년 반닌(나트랑 북쪽 백마작전지역)지역이라고 박물관 직원의 말을 인용하여 주장하는 등 추측과 낭설만 무성할 뿐 근거가 명확한 신뢰성있는 답변은 찾기 어려웠다.

이상과 같이 종합검토한 결과 이 홍보용 사진은 청룡부대원의 포로되는 장면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군의 포로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적이 심리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조작한 가짜사진일 가능성이 크다. 사진의 眞僞문제를 알기 위해 외교경로를 통해 하노이 당국자에게 문의한 결과 일부 답신을 받았으며 정확한 검증은 현지 방문을 통해 진위를 가릴 예정이다.

4. 戰況報告를 허위과장하는 越盟軍

全교수는 월맹군이 작성한 그들의 전투기록과 전승내용들 중에서 한국군의 피해상황에 관련된 부분을 예로 들면서 한국군의 포로 및 실종자가 많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그들의 전황보고가 우리 전황보고와 비교 분석할 때 너무나 많이 허위, 과장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1968년도 월맹군 전황보고 중 한국군 포로에 대한 내용을 보면,

○ 4월 1일 빈딩성에서 300명이 사망, 부상, 체포

○ 7월 12일 쿨는 서북쪽 42km에서 맹호중령 1명 사살

○ 7월 26일 다낭에서 650명 사망, 부상, 체포(이중 일부가 한국군)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全교수는 4월 10일 빈딩성에서 발생한 포로와 7월 26일 다낭에서 발생한 포로의 기록을 보면 월맹측에서는 한국군을 전쟁포로로 확보하였다는 증거라고 주장하였으며, 그가 동일한 시기의 한국측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포로의 보고가 전혀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월맹측에서 확보했다는 이때의 포로는 한국측에서는 모두 전사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국군을 매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월맹측 전황보고를 우리측 전투상보와 대조해 보면 16개 전투중 7월 12일자 상황만 정확하게 맞고 그 외는 터무니없이 과장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포로가 발생하였다는 4월 10일의 빈딩성 상황과 7월 26일의 다낭 상황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4월 10일의 빈당성 상황을 알아보자.

월남 중부의 빈당성에 위치하고 있는 수도사단은 2월 17일~4월 1일간에 맹호 10호작전을 수행하였고, 4월 20일에는 맹호 11호작전을 개시한다. 따라서 4월 10일은 기지방어를 하면서 부대 정비 중에 있었고 야간에 소규모의 매복작전을 하는 등 큰 작전이 없었으므로 300명이란 많은 숫자의 피해를 입을 상황이 아니었다. 4월 10일에는 수도사단 사망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보아 월맹전황보고는 믿을 수가 없다

다음은 7월 26일의 다낭 상황이다.

월남 북부의 광남성에 있는 다낭은 항구도시로서 시가지 주변에는 미군이 있고 우리 해병여단은 다낭 남쪽 20km지점의 호이안 일대에 있었다. 해병여단은 7월 15일~7월 18일간에 용호 3호작전을 실시하고 기지에서 정비를 하다가 8월 10일부터 승룡 1호작전을 전개한다.

따라서 7월 26일은 기지주변에서 소규모의 수색 및 매복작전 외에 특기할 작전이 없었고 피해도 전혀 없었다.

全교수가 월맹의 전황일지에 기록된 내용이 한국측 전투상보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은 월맹측이 포로로 잡았다는 많은 인원이 한국군 측에서는 전부 전사처리로 조작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검토했듯이 4월 10일과 7월 26일에는 큰 작전이 없었고 손실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의 논리대로 월맹군 전황보고의 포로가 전사자로 처리되었다면 이날 아군 전투상보에 전사자의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지 않는가? 따라서 포로나 실종자를 전사처리했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월맹군의 전황보고는 무조건 믿고, 우리측 자료는 검증하려는 노력도 없이 포로를 전사자로 조작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뒷받침으로 하여 900여명의 포로 및 실종자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펴는 것은 큰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5. 국군포로 12명의 공작귀환설은 虛構

4월 16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관에서 全교수의 논문발표시 HID요원으로 참전했던 Y씨는 이날 토론에서 “72년 베트남에서 월맹측 첩보원들과 협상을 벌여 돈과 쌀 등 현물을 지급하고 12명의 국군포로를 인도받은 사실이 있다.”(중앙일보 94. 4. 19)고 주장하였으며, KBS-1TV에서는 4월 29일 주간 뉴스초점에서 동일한 발언내용을 장모씨로 증언자의 姓만 바꾸어 증언시킴으로써 국방부의 8명 실종자통계를 뒤엎고 全교수의 많은 수의 포로 및 실종자의 발생주장을 강력히 뒷받침해 주었던 것이다. 그렇게 되자 국방부 관련기관에서는 한국군 포로 12명을 정보요원의 공작에 의해 귀환시킨 기록을 여러 자료를 통해 알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국방부에서는 Y씨를 수차에 걸친 탐방 끝에 그의 신원을 찾아냈고 그가 가평문화예술포를 발행하는 엄한얼(48세, 본명 엄찬성)으로써 파월당시 사병으로 정보과건대에 근무했던 것을 확인했으며 직접면담(5. 11)을 통해 발언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는 관련정보기관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니가 엉뚱하게도 그 일은 정보계통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왔다는 김용철(42세 가량)씨의 단독지시에 의해 1970년 9월부터 10월 2일까지 약 1개월 동안에 3차에 걸쳐 12명을 귀환시켰다고 종래의 주장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무려 3시간에 걸친 대화 속에서 그의 주장의 모순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엄씨는 일개사병의 신분으로서 명령계통의 지시없이 청와대에서 왔다는 사람의 말만 듣고 1개월 동안이나 단독작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군에서 사병의 신분으로 어떻게 직속상관의 명령없이 제멋대로 행동한단 말인가? 그리고 만약 그런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더라면 사후에라도 직속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그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얼버무리고 있다. 정말로 그가 12명의 포로를 구출하였다면 무공훈장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 또 엄씨는 숲교수 논문발표시나 TV대담시는 포로교환의 조건으로 돈과 쌀 등 현물을 주었다고 하였으나 그후 직접면담시는 쌀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포로 1명당 500달러를 주고 교환하였다고 하였으며, 공작장소도 TV방송시에는 라오스 국경지역이라고 했다가 직접면담시는 눈을 가리고 가서 잘 모르겠으나 본인이 근무하던 백마부대 주둔지 부근의 베트남지역이라고 답변하는 등 일관성없는 말을 많이 하였다. 사병의 신분으로 지휘계통의 명령없이 포로를 구출하였다는 엄씨의 발언은 군의 특성상 있을 수 없는 허위진술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엄씨의 직속상관 및 공작담당관은 그와 같은 작전을 계획하거나 실시한 적이 없으며 만일 엄씨가 계속 이를 주장한다면 대질심문을 통해 허위사실임을 입증해 주겠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엄한얼씨의 진술내용은 진술의 일

관성 결여, 관련기관의 작전기록이 없다는 점, 군의 특성상 군 작전의 본질적 문제들을 고려할 때 그의 주장은 虛構임에 틀림없다.

6. KBS 증언자의 推理劇과 偏向報道

지난 4월 29일(금) KBS-1TV에서는 주간 뉴스초점 시간에 ‘의문 제기된 베트남전 실종자’라는 제목으로 20여분간 방영한 적이 있다. 내용을 요약하면 전경수 교수의 논문내용을 일부 참전자를 동원하여 대담하는 형식을 취해 지지, 찬동하고 그 주장을 입체적으로 확인시키는 과정이었다. 필자는 그들 동원된 증언자들의 발언내용을 주의깊게 듣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한 파월유공자전우회의 간부인 황모씨는 침병부대와 주력부대의 이동 및 치열한 전투 등 월남전 전술작전개념에도 맞지 않는 주력의 잔류부대가 포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말하면서 소교수의 주장에 심증이 간다고 답변했고 포로 및 실종자가 발생했을 경우 지휘관이 전사처리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동 파월 유공전우회의 전모씨는 실종자가 발생할 경우 작전부대의 사기가 저하되고 지휘관이 문책을 우려하여 전사처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며, 맹호부대 수색중대원인 이장원씨도 한결같이 같은 내용을 증언하였다. 이것은 KBS가 보도방향을 전교수 논문의 지지쪽으로 맞춰 놓고 이에 동조하는 증언자의 발언을 방영했는지 또는 증언자의 발언내용 중에서 KBS의 보도방향에 적응하는 내용만을 방영했는지는 모를 일이다. 어쩌면 이해가 가지 않는 증언들이 그렇

게 쉽게 나올 수 있단 말인가. 또한 KBS는 미군과 한국군의 포로와 실종자를 비교하면서 연인원 300만명이 참전한 미군과 32만명이 참전한 한국군과의 사상자 비율이 10:1의 비율이나 실종 및 포로의 숫자만 적다고 주장, 미군과 한국군의 작전환경의 차이를 무시한 산술수치를 전술작전에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였던 것이다.

맹호부대 사단장을 지냈던 정득만 장군은 실종자가 발생해서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없었으며 미군의 포로 및 실종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해서 한국군의 실종자도 많을 것이라는 추측은 국군의 작전환경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고, 포로나 실종자가 발생시 지휘관들의 입장이 난처하여 전사처리를 할 가능성에 대해 이역만리 타향에서 끈끈한 전우애로 뭉쳐 있는 장병들이 어떻게 책임추궁이 두려워 실종자를 전사자로 처리할 수 있겠는가? 고 반문하였다. 또한 성동고등학교 김영시 교사는 백마부대에서 20개월간 근무하면서 국군 실종자가 발생했다는 말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강력히 부인하였으나 그것은 방영되지 않고 북한 심리전요원활동과 전단으로 미루어 보아 포로 및 실종자가 더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만 방영하였다고 KBS의 편파보도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리고 KBS는 하루에 100통씩의 제보전화가 온다는 등의 전교수의 주장방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방영하였으며, 국방부의 주장은 짧은 시간에 지극히 단편적인 것만 대답하게 하고 이를 방영함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전교수의 주장을 타당성있게 평가하도록 유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KBS가 동원한 증언자들은 한결같이 심증이나 추리이지 확실한 근거자료를 내놓지 못하는愚를 범하였다.

KBS는 TV방송의 범국민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선동적이거나 왜곡편향된 보도를 지양하고 공영방송으로서 국가이익을 고려한 공정한 방송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7. 結 語

그동안 학계와 언론계에서 파월국군 실종자(포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연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해 준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앞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파월국군 실종자 900명은 터무니없는 추측과 계산착오이며, 하노이 군사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는 ‘남조선 군인들의 얼굴’ 사진은 그들이 전승을 호도하려는 조작된 사진이고, 월맹에서 발표한 전황보고는 대부분 허위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 논쟁을 계기로 삼아 자유세계의 수호자로서 이역만리 타국에서 싸우다가 실종(포로)된 자에 대해서는 晚時之歎의 감은 있으나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國家的 次元에서 外交努力을 傾注 生存 有無를 다시 한번 더 파악하여 그들의 행방을 찾는 데 心血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 명의 생존하고 있는 실종자(포로)가 추가로 확인된다면 가족과 국민 앞에 사실대로 공개하고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 귀국시키거나 善處할 것입니다.

끝으로 평화의 십자군으로 값진 희생을 한 수많은 영현들의 명복을 빌며 아직까지도 병상에서 신음하고 계시는 부상전우와 그

가족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모든 국민은 따뜻한 동정의 손길로 이들을 위로해야 할 것이며, 숭고한 자유 수호의 희생을 대리전쟁, 또는 돈벌이를 위한 용병으로 매도함으로써 그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고 戰史를 왜곡하는 행위는 삼가야 할 것입니다.